

SINCE 1986

# 선보가족

사훈 **항상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자**

**SUNBO FAMILY**



**SUNBO Ind Co.,Ltd.**

부산광역시 다대동 1517-2 TEL:051-261-3454 Http://www.sunboind.co.kr 2008년 2월 15일 금요일 | 제49호 |



## 제 2공장을 주목하라

우리 회사의 제 2공장이 본격적인 출항을 준비한다.

타 공장과는 또 다른 매력을 발산할 이 공장을 짊어질 김동희 차장, 윤한문 소장, 문승석 소장, 서경일 기원과 함께 했다.

### 제 2공장에서 일하게 된 소감, 앞으로의 각오는?

#### [윤한문 소장]

우선은 자체적 공장이 생긴다는 생각에 한껏 기대가 부풀어 있는 상태예요. 임대 가 아닌 새로운 시설, 우리 공장이라 그 감회가 더욱 새로운 것 같아요. 지금은 부족한 점도 많아서 비오는 날은 능률이 떨어지지만 셀타 등 세부적인 사항이 부차적으로 해결된다면 머지않아 좋은 공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

만 처음부터 욕심 부리지 않고 잘한다는 소리 보다는 잘못한다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아요. 이런 각오로 멀리 보고 나아가야죠.

#### [문승석 소장]

공장도 크고 깨끗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크레인이 도입되어서 기대가 커요. 좋은 환경이 주어진 만큼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아요. 사장님 외 전 임

원들이 따뜻하게 맞이 해주시는 만큼 큰 성과를 이룩해내야죠.

#### [서경일 기원]

새집으로 이사한 기분이에요. 저도 기대가 많이 되요. 하지만 본사, 유니텍과 선보라는 이름 아래서는 같지만 선보 내 경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름대로의 시설과 그에 맞는 인력을 갖춰서 타 공장과는 다른 매력을 키워나가

야 해요. 그래서 목표 또한 어느 정도의 수준에 빠른 시일 내에 도달하는 것이예요. 신축공장을 성장시키기 위해선 얼마나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냐에 달려 있다고 봐요. 3월에 정상적으로 풀가동 되면 그때부터 열심히 움직여야죠.

#### [김동희 차장]

새로운 시설을 움직일 생각에 벌써부터 기대 되요. 하지만 아직은 정상적인 시스템이 가동되지 못하는 실정이에요. 인력과 기계 작동 등 당장에 시급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을 점차 보완해 나간다면 타 공장 못지 않은 기세를 보여줄 예정이에요.

벌써부터 그들은 멀지 않은 미래를 보며 오늘도 끊임없이 작업 중이다. 본사와의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처럼 제 2공장이 타 공장과의 선의의 경쟁으로 탄탄하고 신속하게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



지난 1월 18일 선보공업(주)와 에젤(주), 그리고 (주)지에스 코퍼레이션 간에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조인식을 가졌다.

### “선보시스템즈(주)” 설립

합작회사명은 “선보시스템즈(주)”로 하였으며, 설립 목적은 Oil & Gas를 비롯한 각종 Plant에 들어가는 Process Equipments의 국산화를 추구하고, Engineering 전문업체 설립을 통한 해

외 Packager와의 연대를 추진하여 해외 기술력을 획득하기 위함이다. 이로서 우리회사는 그동안 육상 및 해상 플랜트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었다.

### 경영혁신 “내 몸에 꼭 맞게”

지난해 경영혁신이 이룬 위주였다면,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환경에 맞게 또 다른 개념의 경영혁신을 실현할 예정이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달 말과 이번달 초에 걸쳐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현장 혁신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해에 외부강사를 초청해 경영혁신의 초석의 다졌다면 이제는 회사 내부 강사를 이용해 다대, 구평, 영도 등 각각의 공장 별 특성에 맞춰 교육이 계속될 방침이다.

이에 앞서 현장혁신 실무교육도 이뤄졌다. 절단, 용접, 도면 판독 등 지난해에 현장교육을 받지 않았던 사원 등을 배려해 교육시간을 줄이는 대신 단기간 내에 자신이 맡은 일의 이론과 원리, 역할 등 원론적인 문제의 이해와 흐름

을 익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혁신운동에 참여해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교육적 열의로 하여금 일할 때의 어려움을 최소화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실무교육은 1, 2차 이틀에 걸쳐 녹산공단 부산인력개발원에서 이뤄졌다. 자기 능력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러한 부분에서의 교육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다.

또 이러한 교육을 토대로 용접, 절단, 도면 판독의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격증을 습득했을 시의 인센티브 문제 등 아직 준비 단계이지만, 이것이 활성화 될 시 ‘맞춤 경영혁신’은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경영혁신 SB2012



# SB2012 달성을 위한 혁신인재 육성 교육체계 수립

경영혁신 사무국은 우리회사의 중장기 전략인 SB2012 달성을 위한 전문적 과업능력과 열정을 겸비하고 조직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핵심인재육성을 위한 혁신인재육성 교육체계를 수립하였다.

## 혁신인재 육성 체계

구분	핵심역량 (30%)					직무역량 (50%)		혁신역량 (20%)	구분			
	Leadership	Value Driven	Team Player	Creativity	Do-It	경쟁전략	직무과장					
인재 단계	임원	LEADER-SHIP	VALUE DRIVEN	TEAM PLAYER	CREATIVITY	DO-IT	경쟁전략	직무과장	BSC	PI	TPS & SS	임원
	차장											차장
	과장											과장
	대리											대리
인재 단계	계장	LEADER-SHIP	VALUE DRIVEN	TEAM PLAYER	CREATIVITY	DO-IT	경쟁전략	직무과장	BSC	PI	TPS & SS	계장
	사원											사원
	신/협											신/협
	입/주											입/주
인재 단계	08년	LEADER-SHIP	VALUE DRIVEN	TEAM PLAYER	CREATIVITY	DO-IT	경쟁전략	직무과장	BSC	PI	TPS & SS	08년
	09년											09년
	10년											10년
인재 단계	08년	LEADER-SHIP	VALUE DRIVEN	TEAM PLAYER	CREATIVITY	DO-IT	경쟁전략	직무과장	BSC	PI	TPS & SS	08년
	09년											09년
	10년											10년
인재 단계	08년	LEADER-SHIP	VALUE DRIVEN	TEAM PLAYER	CREATIVITY	DO-IT	경쟁전략	직무과장	BSC	PI	TPS & SS	08년
	09년											09년
	10년											10년

혁신인재육성 교육체계는 조직내에 고착된 관행과 고정관념을 혁파하고 혁신적 아이디어를 관철시키는 추진력을 갖춘 창조인과 조직내 일체감을 통해서 조직 충성과 고객만족을 구현할 수 있는 화합인 등 5대 혁신인재상을 설정하고, 이를 확보,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체계를 핵심역량, 직무역량, 혁신역량 등 3개의 영역으로 분류하고 2010년까지 순차적으로 향상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시작할 실무 역량과 핵심역량 등의 역량 향상이 향후에는 전 조직으로 자연스럽게 확산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핵심인재의 역량과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조직에 체화시킬 수 있는 혁신인재육성체제로 발전해나갈 계획이다.

## 혁신인재상

**변화인:** 하나, 나로 부터 새롭게 혁신 사고를 다지는 변화인

**창조인:** 하나, 새로운 발상에 주저하지 않는 창조인

**학습인:** 하나, 자기 개발에 적극 투자하는 학습인

**화합인:** 하나, 건전한 가치관으로 팀웍을 중시하는 화합인

**도전인:** 하나, 새로운 변화와 도전적 목표 달성에 적극적인 도전인

직무역량 영역에서는 주어진 과업의 수행과 더불어 기존 틀을 넘어서는 전략적 통찰과 추진력을 갖춘 인재육성을 목표로 각 부서별 직무교육 실시 및 교육과정, 교재개발을 지원하며, 초급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실무업무향상을 위해 영업관리, 생산관리 등 우리회사의 핵심기능을 통합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교육 실시하여, 이들이 여러 분야의 업무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조직내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 협조적 분위기 조성 등으로 회사 전반적 능률 향상 및 실무기초 능력을 배양할 계획이다.

그리고 핵심역량 영역에서는 회사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시야와 전략적 감각을 갖춘 인재 육성을 목표로 코칭스킬향상과 목표공유, 원가인식, 팀웍형성, 문제의식, 실행스킬 등을 우선적으로 향상할 계획이며 핵심역량 영역에서는 BSC, PI, SS, TPS 등 기존 혁신 프로그램 안착에 초점을 두고 향후에는 조직에 긴장감과 위기의식 부여로 구성원들의 발전의욕을 촉진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목표로 기존 혁신 프로그램 발전 및 6 시그마 도입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도 획일적 인사제도로 인해 이들이 일반인력속에 묻혀 하향평준화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 '08년 주요 교육과정 소개

### (1) 핵심역량 영역

#### 1) 성과향상 리더십 스킬

- 교육대상 : 과장~임원, 생산팀장~선임팀장, 교육 희망자
- 교육목적 : 성과관리의 기본원칙을 이해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성과창출을 위한 조직내 업무환경 조성

#### 2) 원가분석 및 원가절감 추진 실무

- 교육대상 : 대리~임원, 생산팀장~선임팀장, 교육 희망자
- 교육목적 : 경영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원가에 대한 이해와 기발생원가에 대한 관리방안을 습득하여 원가절감을 통한 기업목표관리 가능

### (2) 직무역량 영역

#### 1) 현장용접 실무

- 교육대상 : 생산사원~주임, 교육 희망자
- 교육목적 : 현장 사원 누구나 용접을 직접할 수 있게하고, 정확한 가접으로 최상의 용접 품질 및 생산성 향상

#### 2) 초급관리자를 위한 핵심직무 통합교육

- 교육대상 : 사원~계장, 교육 희망자
- 교육목적 : 초급관리자들에게 여러 분야의 업무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조직내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 협조적 분위기 조성 등으로 회사 전반적 능률 향상 및 실무기초 능력 배양

### (3) 혁신역량 영역

#### 1) 현장혁신 통합 교육 (SS+TPS)

- 교육대상 : 현장사원~선임팀장, 교육 희망자
- 교육목적 : 현장 문제점에 대해 현장 작업자 스스로 발취 및 해결 능력 배양

#### 2) BALANCE SCORED CARD

- 교육대상 : 사원~대리, 교육 희망자
- 교육목적 : BSC 기본 개념과 운영 및 평가를 이해하고 핵심성과지표(KPI) 도출 능력 배양

## 직무공통 OA능력 향상과정 - 파워포인트 교육 시작

우리 회사는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OA교육 중 프레젠테이션시 자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인 파워포인트 1차 교육을 13명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총10시간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1일차에 파워포인트 핵심 기능 학습과 2일차에는 실무 사례를 통한 파워포인트 활용 학습으로 구성되어 보다 실무적인 내용을 집중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교육생 1명당 실습용 노트북 1대씩 지원으로 보다 효과적인 실습을 할 수 있었다.

교육 종료 후 설문결과 대부분의 교육생들이 이번 교육이 회사 업무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고, 차후 기회가 된다면 다른 교육에도 적극 참여하기를 희망하였다.

경영혁신사무국에서는 2월에 파워포인트 실무 2차 교육과 사용 빈도가 높은 함수 위주의 엑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생산직 직원들로 교육대상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가볼만한 여행지 | 우포늪



# 겨울 철새들의 낙원 '우포늪'

이번 호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가볼만한 여행지로 '우포늪'을 선정했다. 남해고속도로를 따라 구마고속도로 방면 경상남도 창원군에 위치한 우포늪. 소가 늪에 머리를 대고 물을 마시는 것 같은 형상과 비슷하다 하여 '소밭'이라고도 불린다. 우포 외에도 목포, 사지포, 쪽지벌 등이 위치해 있다.

우포늪에는 현재 1000여종의 생명체가 서식하고 있으며, 1997년 생태계 특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그 만큼 천연 기념물로 보존되고 있는 다양한 희귀새와 희귀식물들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약 1억 4천만 년 전에 형성되어 '태고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는 우포늪은 겨울 뿐 아니라 봄, 여름, 가을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자연 본연의 아름다움을 선사하며 마치 원시림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겨울철에는 겨울철새들이 추위를 피해 많이 찾아와 아이들에게 살

아있는 생태 학습 현장으로도 유명하다. 자연이 만들어 낼 수 있는 황홀한 풍경의 연속인 이 곳은 오는 10월 말 '세계환경올림픽'이라고 불리는 람사르 총회가 '건강한 습지, 건강한 인간'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인간과 자연이 수평선 너머에 맞닿아 형성된 우포늪. 그 곳의 일몰을 같이 보고 싶은 연인 혹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그 절경을 만끽해 보는 것은 어떨까.



## 제3공장 사무동 기숙사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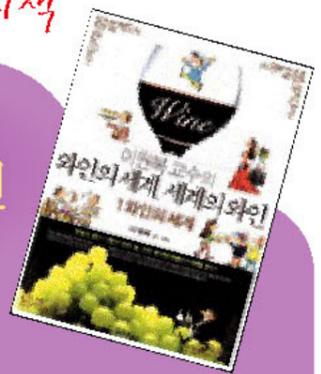
지난달 초 제3공장 사무동 1, 2층에 기숙사가 신설됐다. 이번 기숙사 신설은 원거리에 있는 직원들이 겪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직원복지, 사기 증진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 2층 구조로 신설된 기숙사는 11개의 방과 휴게실, 샤워장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각 방에는 유선 TV를 비롯해 무선 인터넷, 개별난방 등이 설치되었으며, 탈의실과 샤워실을 겸하는 시설도 마련됐다. 또한, 휴게실에는 42" PDP를 비롯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이 구비되어 업무에 지친 하루를 편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번 기숙사에 입사한 한 직원은 "기존의 2인실보다 깨끗하고 넓으며, 편리한 점이 많다. 원거리에 있는 직원들에게 회사에서 이러한 좋은 시설이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어서 일할 맛이 난다"고 말했다.



최홍렬상무의 **이한권의책**

### 이원복 교수의 와인의 세계, 세계의 와인



[21세기 만나라 이웃나라], [가로세로 세계사] 등 대한민국 대표 교양민화 저자로 널리 알려진 이원복 교수가 새로운 시리즈를 선보였다. [이원복 교수의 와인의 세계, 세계의 와인]이 바로 그 타이틀이다. 와인을 사랑하는 와인애호가로써 흥에 겨워 민화를 그렸고 수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직접 프랑스 및 세계 각국의 와이너리를 탐방하여 보다 생생한 와인의 세계를 그려냈다. 한국 최고의 교양민화가리는 평담하게 와인을 다루면서 와인과 인류사, 와인과 문명의 발달, 와인과 종교, 근대화 와인이 끼친 영향과 신대륙 와인의 도전 등 와

인의 문화사도 심도 있게 다루었다. 더불어 인문학적으로 와인을 다루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와인에 얽힌 발효의 과학, 포도의 품종과 특징, 와인 마시는 온도 등 와인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원복 민화가 세대를 이어 수십 년에 걸쳐 인기를 끄는 이유는 다루고 있는 지식의 방대함과 더불어 민화로서의 재미 때문이기도 하다.



23호 칭찬 릴레이~

성기모 선임조장 (추천인: 박준복)

맡은 일에 대한 충분한 이해,  
높은 능률의 원동력

일에 대한 욕심이 많고 그에 뒷받침 되는 성실함까지 갖추었어요.



칭찬 릴레이 23호 주인공으로  
선정된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많이 부끄러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깨끗하게 일한다고 저를 칭찬해 주셨는데 칭찬 받을 만큼 다른 직원들보다 잘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직원들이 '같은 마음' 이겠지만 제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것을 몇몇 분들이 성실하게 일하는 것으로 봐주셔서 감사하죠. 주변 동료들이 이 기회를 빌어서 많은 격려를 해줬어요.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어깨가 무거워지네요.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부끄럽지 않고 뿌듯하다는 마음이 먼저 들게 더 열심히 일해야 할 것 같아요.

평소 어떤 마음가짐으로 근무하세요?

제가 선보에 입사한 지도 벌써 4년 정도가 됐어요. 그동안 많다면 많은 일들을, 또 적다면 적은 일들을 접했지만 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기보다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했던 것이 오늘의 모습을 만들어 낸 것 같아요. 또 제가 주로 팀을 구성해서 동료들이 함께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 한 사람의 아이টে이션으로는 힘에 부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는 스스로 아이টে이션에 대한 고민도 해보고 모두가 함께 하는 팀워크가 중요시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동료가 서로 도와서 제대로 된 아이টে이션을 생성하는 데 주력을 다하는 편이에요. 이런 팀워크가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자기 스스로 공부하면서 시스템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하고 모두가 그것을 실현함으로써 그 일의 능률이 오른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것들이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회사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예요.

24호 칭찬 릴레이의  
주인공을 추천해 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평소엔 많은 존경했던 분을 추천하려고 해요. 바로 장정현 반장님이예요. 처음엔 조금 날카롭고 무뎠던 인상에 다가가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일을 같이 하고 함께 하는 날이 많았으니 첫인상과는 다르게 배울 점 많고 좋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을 하다 보면 아이টে이션을 생성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또 그것을 책임지고 실행시키기가 힘들 때가 많은데 장정현 반장님은 자신이 맡은 아이টে이션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요. 그 외에도 다른 동료들에게 대하는 모습이나 일하는 태도 면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변엔 물론 칭찬하고 싶은 분들, 칭찬해야 할 분들도 많지만 망설이지 않고 추천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덧붙여 4월에 결혼을 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리다고도 전하고 싶어요.

특히합니다

<b>본사 공장</b>	<b>생산3팀</b>	<b>생산관리부</b>
<b>생일</b>	강현욱 (2/1)	임현웅 (2/26)
<b>고객지원팀</b>	신승훈(2/1)	<b>생산부</b>
김이근 (2/25)	이도희(2/8)	박관호 (2/25)
	이재현 (2/22)	<b>설계부</b>
<b>구매부</b>		김경수 (2/26)
예연희 (2/11)	<b>구평 공장</b>	<b>입사기념일</b>
<b>생산1팀</b>	<b>생일</b>	<b>생산관리부</b>
최광욱 (2/13)	<b>대한엔지니어링</b>	김광욱 (2/1)
<b>생산3팀</b>	손종필 (2/15)	<b>생산부</b>
임종화 (2/8)	안병연 (2/19)	박관호 (2/1)
<b>생산관리</b>	최종호 (2/3)	
장기봉 (2/8)	이창희 (2/13)	<b>영도 공장</b>
이재민 (2/12)	<b>대강산업</b>	<b>생일</b>
<b>설계부</b>	김광주 (2/4)	<b>품질부</b>
오영석 (2/15)	성민호 (2/2)	김영호 (2/19)
김경수 (2/26)	오우정 (2/6)	
<b>품질보증부</b>	김현덕 (2/24)	<b>목포 공장</b>
김태형 (2/23)	심주섭 (2/24)	<b>입사기념일</b>
<b>입사기념일</b>	김영배 (2/8)	<b>생산관리</b>
<b>고객지원팀</b>	<b>명성산업</b>	박원석 (2/1)
이상훈 (2/1)	권태식 (2/16)	<b>생산부</b>
<b>생산1팀</b>	박현수 (2/14)	노성담 (2/1)
박재용(2/14)	김성권 (2/14)	



칭찬 릴레이 는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선보에 정착되기를 바라며 펼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생생 현장의 소리

**‘물 흘러가듯’  
순차적으로**

기술영업부 김광문

부서를 옮기게 됐어요. 설계부도 설계부 대로의 임무가 있고 영업부도 마찬가지로요. 설계부에 있을 때는 자세히 알 수 없었던 부분을 많이 알아가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회사 제품을 파악하고 또 그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기도 해요. 설계를 할 때는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할 때 얼마나 절감이 됐는지 잘 몰랐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부분을 보다가 전체를 감당해야 하니 외부 일도 많아요. 본 업무 외에도 각 조선소 담당자와의 다양한 부분들이 총괄적으로 영업부가 관리해야 해서 늘 바쁜 편이에요.

**일하면서 힘든 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일하면서 힘든 점이 계속해서 노력하다보면 고쳐지고 개선되는 부분이 많아요. 일하면서 힘든 점 외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부서간의 화합이예요. 물론 모든 부서의 임무가 중요하고 때로는 많은 업무량에 힘든 것도 사실이예요. 하지만 서로의 부서 간에 이해와 배려가 부족할 때가 많아요.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서로의 빈틈을 채워주고 이해와 배려가 많이 필요할 시점이예요.

**‘모범 사원상’을 받은 소감, 평소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하는지?**

제가 선보에 입사한지도 어느덧 4년이 지났는데 그 시간 동안 이러한 상을 받을 기회는 적었던 것 같아요. 물론 상을 받을 만큼 일하는 태도라든지 실적이 뛰어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상을 받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한편으로는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평소에 일할 때 다른 동료들에게 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일은 항상 순차적으로, 물 흘러가듯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어요. 또 모두가 그렇겠지만 일을 하는 순간만큼은 진지한 태도로 하려고 하죠.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저는 지금 기술영업부에서 일하고 있어요. 설계부로 입사했다가 2005년에

틀린 그림 찾기(5개)

**‘선보가족’은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기다립니다!**

가족들의 편지나 자녀의 일기 여행 이야기 등... 다양한 글을 빨간 우체통에 넣어주시면 예쁘게 편집하여 사보에 실어드리고, 먹으로 사보와 함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051-260-5535 011-7435-3454 윤강재 과장